
해외견문체득훈련 결과보고서

2023. 11.

미세먼지 없는 그 곳으로 떠나라 해외견문체득훈련 결과보고

2023년 해외견문체득훈련(일본 오키나와 11.7~11.10)의 주요활동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.

□ 주요 활동 및 성과

《 주요 성과 》

- 일본의 미세먼지 원인 및 대책 파악
- 정책, 시설물 적용, 국민들의 실천사항 등을 두루 살펴보는 유익한 견문
- 경제
 - 오키나와 경제는 지역 특성상, 관광과 서비스업이 유독 발달한 형태로, 상대적으로 1, 2차 산업의 비중이 낮고, 식품, 가전제품, 자동차 등은 일본 본도에서 수송하여 사용
 - 경제성장으로 인한 내부적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적은 장점이 있음
- 문화
 - 과거 류큐 왕국의 독립적인 문화로 존재하여 일본 본토와는 다른 양상의 문화(중국, 동남아시아 등의 문화를 수용)가 꽃피었고,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음(현지 가이드 설명)
- 현지 견문을 통한 시민의식 확인
 - 해외견문 중 일본 오키나와의 많은 시민들은 번거로움 감수하고 대중교통,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을 많이 이용하였고
 - 특히 지하철, 일반가옥에서도 자전거 보관소가 정말 편리하고 보관이 간편하게 완비되어 있음
 - 또한 도로의 대다수가 차량이 경차를 이용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줄이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

일본 오키나와 해외전문체육훈련 결과보고

I 해외전문체육훈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

【1일차】

- 출국 : 한국 인천 → 일본 오키나와(나하공항) : 약 2시간 소요

【2일차】

- 오키나와 나하 시청, 국제거리 방문
 - 오키나와 나하시청 앞은 나무와 동상까지 아주 잘 꾸며져 있으며 우리나라 관공서 규모와 비슷한 하였음
 - 시청 미세먼지 관련 담당자 미팅
 -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별한 정책(우리나라 : 친환경차량 도입, 숲가꾸기사업 등)은 없으나
 - 개인 승용차 구입 시에도 철저한 차고지 증명 필요
 - 지리적 위치도 중국에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음
 - 나하시청 근처 국제거리 오키나와의 중심도시이며 약 1.6km의 변화한 일직선의 거리로 오키나와 수호신과 같은 토산품을 판매하는 상점, 쇼핑센터, 호텔 등이 밀집된 관광 명소
 - 변화한 1.6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과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간편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
- 현지가이드설명
 - 국가정책 보다 시민들 스스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천하며 생활에 적용하고 있음

【3일차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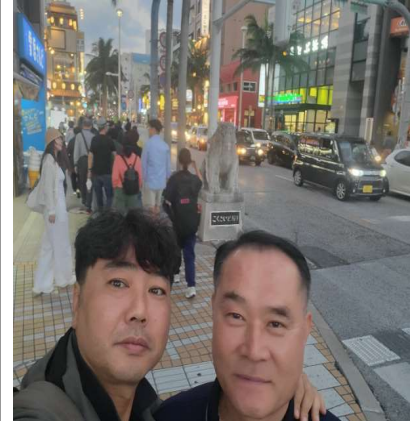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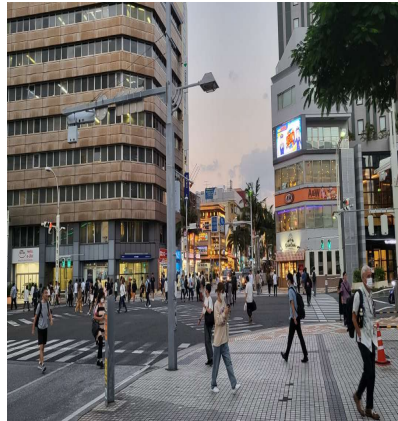
- 국정공원(푸른동굴 및 만좌모), 추라우미 수족과 방문
 -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과 깨끗한 바다가 있는 오키나와 해안 국정공원에 위치한 관광 명소(푸른동굴, 만좌모) 방문
 - 일본의 공원 제도로,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환경대신(우리나라 : 장관격)이 지정한 공원으로 국립공원에 준하는 명승지로, 도도부현(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)이 국토축이나 도심부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관리
 - 공원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발생한 공원관리 제1의 문제는 무단 쓰레기이며 공원 공공주차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음
 - 오키나와의 바다, 풍요로운 자연과 역사문화 체험할 수 있는 해양박공원(추라우미 수족관) 방문
 - 다양한 공원 내 프로그램 참여
 - ☞ 열대드림센터 2,000주 이상의 난 등 식물 전문 가이드
 - ☞ 식물관리센터 미세먼지 해결 방안 중 하나인 도시녹화에 적합한 다양한 식물과 이용방법 소개
 - 추라우미 수족관은 해양 동·식물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실시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생물의 보호나 육성, 다양성 보전 등에 환원하고 있음
 - 또한 세계적인 환경문제인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·연구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자구적인 관람 입장료 및 공공주차장 운영을 통한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(국가적 지원 보다 자구적 노력에 의한 성과)

【4일차】

- **아메리칸 빌리지 방문, 도시 전기 모노레일 탑승 및 역사 주차시설 견문**
 - 고전적인 미국 감성과 오키나와 지역의 정취가 어우러진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탄 지역의 아메리칸 빌리지 방문
 - 이곳 또한 국제거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환경정책은 없으며 자전거 이용 및 곳곳에 보관소가 설치·운영 중이었고, 특별한 정책은 아니지만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을 확인 할 수 있었음
 - 오키나와 도시 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 운송 수단 전기 모노레일 탑승
 - 나하공항 ~데다코우리니시(17.0km)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편도, 1~2일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구입 후 탑승 가능
 - 탑승 후 역사 3개소 하차 주차시설 및 자전거 보관소 견문, 주차시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으나, 자전거 보관소는 잠금장치, 일부 역사에서는 이용자 샤워시설(가이드 설명)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었음

- **슈리성 방문**
 - 류큐국의 수도였던 슈리에 위치한 왕성으로, 오키나와현 내 최대 규모의 성이며 또한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하여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었음
 - 바야트리 나무를 식재하여 자연재해(태풍 등)를 대비하는 한편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음(가이드 설명),
 - 자연재해를 자연을 이용하여 극복하는 정책이 인상적이었음

【나하 시청, 국제거리 방문】 ‘11. 8.’



“ 참석자 의견 ”

- 차광석 : 나하시청 덩굴이 우거진 모습이 특히 하였음
- 우향식 : 변화한 국제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무단 쓰레기를 찾아 볼 수 없었고 그런 시민의식 부러웠음
- 마현자 :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에 쓰레기통 하나 없지만 바닥에 무단 쓰레기 없는 모습에 감탄하였음
- 남은숙 : 건물이 너무 독특한 구조였으며, 환경 및 주차 정책에 대한 가이드 설명에 도시공사와 비교하는 계기가 되었음
- 박미량 : 지리적인 위치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음
- 김영지 : 거리에 많은 자전거 보관소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관소 도입 필요
- 최진근 : 도로에 친환경 차량(전기, 수소) 없는 모습에 놀랐음
- 백준우 : 나하시 환경정책을 이해할 수 있었고, 아무리 좋은 정책보다 시민 스스로 자전거 이용(의식), 사용이 편리 보관소(정책) 설치의 조합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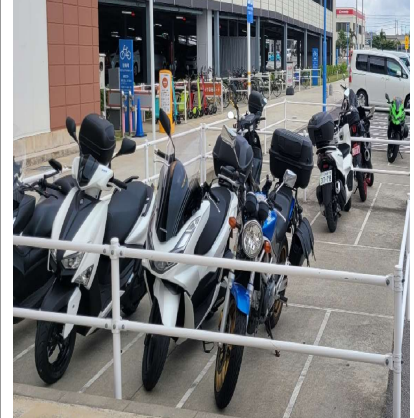
【국정공원, 추라우미 수족관 방문】 ‘11. 9.’



“ 참석자 의견 ”

- 차광석 : 해양생물과의 감동적인 체험이었음
- 우향식 : “미세먼지 없는 그 곳으로 떠나라” 주제와 걸맞는 곳이었음
- 마현자 : 수조관의 규모에 놀랐고, 맑은 공기에 다시 한번 놀람
- 남은숙 : 국정공원, 추라우미 수조관 공공주차장 내 이륜차(오토바이) 주차구역이 있다는 차이점 발견
- 박미랑 : 국정공원(푸른동굴, 만좌모)은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 되고 있음
- 김영지 : 돌고래 공연을 보면서 즐거운 감정이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음
- 최진근 : 공공주차장 내 장애인 이용구간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음
- 백준우 : 수족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(열대드림센터, 식물관리센터)에 참여, 해양 동·식물 조사 및 세계적인 환경문제인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그 조사·연구를 위해 수족관 관람 및 주차 수입금의 일부를 재투자한다는 점에 관심이 높아졌음

『아메리칸 빌리지 및 슈리성 방문 도시 전기 모노레일 탐방』 11. 10'



“ 참석자 의견 ”

- 차광석 : 일본 지역 중 미국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
- 우향식 : 슈리성 2019년 화재(가이드 설명)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함
- 마현자 : 역사 내부는 정말 깨끗하였음
- 남은숙 : 아메리칸 빌리지 모든 쇼핑센터의 주차장은 무료
- 박미랑 : 역사 주차시설은 우리나라에 비교하여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넓게 구축되어 있음
- 김영지 : 슈리성 문화재를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였음
- 최진근 : 도로 및 모노레일 역사 장애인 시설은 우리나라처럼 면적을 크게 활용하기보다는 좁은 면적에 꼭 필요한 편의성 중심의 설계
- 백준우 : 자전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각 역사 자전거 보관소 내 샤워시설, 잠금장치 등 이용고객 중심의 시설에 부러움과 빠른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, 그러면 자전거 출퇴근 대신 한번 도전 의지가 되살아날 듯